

## 한국 월드컵 첫 상대 체코... 25년 전 '오대영' 안긴 동유럽 복병

한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까지 찍었던 '동유럽 복병' 체코가 흥명보호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첫 상대로 결정됐다.

체코는 1일(한국 시간) 체코 프라하의 제네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PO) D조 결승전에서 덴마크와 연장전까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이로써 체코는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 조별리그 A조에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와 토너먼트 진출을 겨루게 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는 오는 6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겨룬다.

뒤이어 19일 오전 1시 미국 애틀랜타의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선 남아공, 25일 오전 10시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선 멕시코를 상대한다.

체코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인 1934 이탈리아 월드컵과 1962 칠레 월드컵에서 준우승, 197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1976)에서 우승을 거두며 동유럽 대표 축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된 뒤에는 과

유럽 POD조 결승서 덴마크 꺾고 본선 확정 A조서 한국, 남아공, 멕시코와 차례로 맞대결 체코, 한때 FIFA 랭킹 2위 오르며 이름 날려 한국과는 통산 5경기 2승 2무 1패로 우위

거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뛰었던 파벨 네드베드를 비롯해 카렐 포보르스키, 블라디미르 슈미체르, 안 클레르 등 쟁쟁한 선수들이 체코를 대표했다.

체코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따금 FIFA 랭킹 2위에 오르며 이름을 날렸다.

특히 지난 2001년 8월 15일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둔 히딩크호 한국에 충격적인 0-5 패배를 안긴 팀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 체코가 오랜 암흑기를 지나 마침내 월드컵 무대에 복귀한다.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L조 당시 체코(승점 16)는 크로아티아(승점 22)에 밀려 본선 직행에 실패했지만, PO D조에서 아일랜드(2-2 무·승부차기 4-3 승), 덴마크를 연파하고 북중미행을 확정했다.

'FIFA 랭킹 41위' 체코는 동유럽팀 특유

의 힘과 높이로 '20위' 덴마크까지 격파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포지션마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최전방에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는 파트리크 시크가 포진한다.

미드필드에는 오랜 기간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누비고 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중원 살림꾼 토마스 소우체크가 버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리백 중심의 3-4-3 또는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중양 수비는 EPL 올버헨튼에서 뛰는 황희찬의 동료이자 체코의 캡틴인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를 비롯해 로빈 흐라나치(호펜하임), 마르틴 베타크(볼로냐) 등이 구성한다.



체코 선수들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의 에페트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PO) D조 결승에서 덴마크를 승부차기로 꺾은 후 환호하고 있다. 체코는 덴마크와 2-2로 비겨 승부차기에서 3-1로 승리하고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한국과 첫 경기를 치른다. /뉴시스

한국과는 통산 5차례 맞붙어 2승 2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직전 맞대결은 2016년으로, 당시 한국은 윤빛가람(부천)과 석현준(용인)의 연속

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한 바 있다. /뉴시스

## 홍명보호 총체적 난국... '못 넣는 손흥민·우왕좌왕 스리백'

2경기 슈팅만 23차례했지만 '무득점'... 손흥민도 침묵 수비 숫자 늘린 스리백은 2경기 '5실점'... 모래알 조직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호가 총체적 난국 상황에 빠졌다.

선발로 돌아온 '캡틴' 손흥민(LAFC)은 발끝이 무뎠고, 지난해 여름 동아시아컵

부터 다듬어온 스리백 전술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한국 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서 치른 오스트리아와

의 평가전에서 0-1로 졌다.

지난달 28일 치른 코트디부아르와 3월 A매치 첫 번째 경기에서 0-4로 참패한 한국은 오스트리아에도 0-1로 지면서 2경기 동안 '0득점 5실점'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A매치 2연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치른 마지막 평가전이었다.

대회 직전 1-2차례 더 평가전이 예정돼 있으나, 본선 경쟁력을 확인할 사실상 최종 모의고사였던 걸 고려하면 모든 부분에서 우려를 낳았다.

홍명보호는 두 번의 평가전에서 총 23개 슈팅을 쏟아냈다. 코트디부아르전 12개(유효슈팅 1개), 오스트리아전 11개(유효슈팅 2개)는 모두 상대 골문을 벗어났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선 골대를 세 차례 맞췄지만, 그게 위안거리가 되지 않는다. 대표팀 '캡틴'이자 '간판 골잡이'인 손흥민의 침묵도 계속됐다.

감기 기운으로 코트디부아르전에서 후반 13분 교체로 출전한 손흥민은 한 차례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오스트리아전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83분을 소화했지만, 세 차례 슈팅이 모두 막혔다.

세 번 모두 전성기 손흥민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득점 기회라 아쉬움은 더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소속팀인 미국 프로 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5경기째 골이 없다. 대표팀에서 골 기록을 갱신할 기회였으나, 부진을 털어내지 못했다.

더 큰 논란은 홍명보 감독의 스리백 고집이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 4골을 내준 대표팀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스리백 전술을 또 사용했다.

코트디부아르전과 비교하면 김진규(전북), 설영우(즈베즈다), 김민재(만해) 3명을 제외하고 선발 8명을 바꿨다.

이전 경기와 비교해 압박 횟수가 늘어났지만, 부정확한 퓌볼 추구가 의존한 공격 패턴은 한계를 드러냈다.

스리백 수비도 코트디부아르전보다 집중력은 높아졌으나, 결국엔 상대 역습에 취약점을 노출하며 후반 3분 마르셀 자비처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수비 숫자는 많지만 선수 간 위치가 벌어져 공간을 제대로 메우지 못한 결과였다.

홍명보호는 지난해 여름 동아시아컵부터 스리백 전술을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플랜 B로 가다듬어왔다.

하지만 수비 조직은 단기간 내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

특히나 소속팀과 달리 A매치 기간 때 짧은 기간 모이는 대표팀 특성상 손발이 맞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월드컵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 허점투성인 스리백이 제대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패적인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선 커미셔너십 전 타석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공사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엔지니어링



### 고흥군, 2026년 차범근 축구교실 개강 유소년 축구 교육의 성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문을 연 '차범근 축구교실'이 4월 1일 생활체육공원에서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은 지역 유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제공하고 건

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고흥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보성, 순천, 여수 등 인근지역 학생들까지 총 80여 명이 신청했다.

올해 축구교실은 기본적으로 매주 1회 수요일 운영되며,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60분간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올

해부터는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주 2회(화·목) 추가 운영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혹서기(7-8월)에는 휴강하며 5월과 10월에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후 11월까지 전문 코치진의 지도 아래 운영할 계획이다.

차범근 감독은 "축구교실의 목표는 선수 육성이 아니라 축구를 즐기며 스포츠 정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흥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축구교실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특히 올해는 4-6학년 대상 추가 운영으로 참여 기회가 확대된 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올해 3월부터 차범근 축구교실 끝나후 육성사업을 위해 고급 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30억 원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며 "차범근 브랜드와 결합한 유소년 축구 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 영암군, 전국 러너 맞이 벚꽃마라톤대회 개최

4월 4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봄 축제 분위기 고조

영암군이 벚꽃이 만개한 봄길 위에서 펼쳐지는 '영암 벚꽃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전국 러너 맞이에 나섰다.

오는 4월 4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3,500여 명이 참가해 벚꽃길을 따라 달리며 영암의 봄을 만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해 달리기와 관광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스포츠 행사로 운영돼,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스는 10km, 5km, 건강걷기 등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참가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형 마라톤으로 진행된다.

군은 참가자 편의를 위해 기간랜드 일원 주차장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15분 간격으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모범안전자회, 부녀회, 영암국병원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교통통제와 안전관리, 응급 대응에 나서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도로 통제와 안내요원 배치 등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영암의 봄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이 달리기 영암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